

한국의료패널 14년의 성과와 전망¹⁾

한달선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의료패널 심의위원회 위원장

1. 한국의료패널의 발상(發想)

모든 목표 지향적 사회 체계가 그러하듯이 보건의료 체계가 소기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추진 조직과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책 설계와 추진 체계 관리에는 품질이 우수한 유관 자료와 분석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적 기능은 대상 인구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하는 것이다. 건강은 많은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므로 건강 상태와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와 제도, 조

직 등의 실상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보건의료부문을 비롯해 관련이 있는 다른 경제사회부문의 다양한 자료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들 사항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의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 보건의료체계의 성장과 구조적 분화 등과 더불어 계속 변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횡단면 조사로는 이러한 동태적 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패널 설계가 그러한 한계를 얼마쯤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컨소시엄에 의한 한국의료패널의 시발과 운영은 이와 같은 상황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것이다.

1)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제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박은자 외, 2019)를 참고하였다.

2. 성과

지금까지 한국의료패널의 주요 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나는 2008~2018년의 연도별 연간 자료인 횡단면 자료와 11년에 걸친 종단면 자료로 구성된 패널 자료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 생산과 패널 자료 분석 역량의 확산·축적이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 자료부터 시작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9년에 2018년에 대한 조사로 제1기 패널을 마감하고, 2020년부터 제2기 패널 조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제1기 패널 조사로 구축된 자료는 2008~2018년의 연도별 연간 자료인 횡단면 자료와 11년에 걸친 종단면 자료로 구성돼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과 가구 단위의 의료비 규모와 재원, 의료 이용 양상, 건강 상태, 건강행위 등과 여타 건강 또는 의료 관련 요인들인데, 특정 연도에만 조사한 자료도 있다.

조사 자료 구축은 한국의료패널의 목적을 향한 첫 단계이고, 자료가 연구와 정책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돼서 얻어지는 가치 있는 결과가 성과이다. 그러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 기관은 조사 자료를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정부 등의 외부 기관에서도 연구, 정책 과정 등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예컨대 자료를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저장하고, 자료 설

명회를 개최하고, 패널 자료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연구자들의 자료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사용의 확산을 기하고 있다.

양 기관은 조사 시작 이래 연도별 연간 조사 자료 전반에 대한 기초적 분석의 결과를 2편의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정책 현안 등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내부 연구진이 또는 외부에 의뢰하여 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한 보고서도 펴내고 있다. 2018년까지 기초 분석 보고서 20편, 심층 분석 보고서 33편을 발간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대하여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논의하고 공유하도록 2009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특정 주제에 대한 기획 세션과 일반 연구자들의 자유 발표 세션, 대학원생 세션으로 구성된다. 미래 연구 인력이 패널 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대학원생의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시상하고 있다.

학술대회는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의료패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련 연구를 권장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의도에서 기획 세션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소개와 자료 활용 방법에 관하여 다각도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논문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포함해 2018년까지 대략

640편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논문이 생산되는 데는 학술대회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패널 설계에 의한 조사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하고 기술적 어려움이 큰데도 장기간 차질이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적과 그간의 체험은 앞으로의 성과를 담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3. 과제와 전망

2020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제2기 패널은 한 국의료패널을 당초에 계획한 이래로 국민의료 관련 여러 정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동안 조사와 운영 과정에서 체험하고 제기된 한계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제1기 패널과 달라진 주요 사항 몇 가지와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패널 마모와 노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사 표본을 교체하였다. 새 표본은 되도록 모집단의 제반 특성에 관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최신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고정 패널과 연동 패널의 장점과 단점, 패널 조사의 목적, 운영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고정 패널을 선택하였다. 조사 문항의 수를 되도록 줄이고 배치를 조정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사표를 일부 수정하였다. 그리고 의

료비를 비롯한 건강관리 관련 다양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포착하는 한편,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하면 영수증 수집과 가계부 작성을 기반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조사 내용 설정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과제들에 대응할 정책의 계획과 평가를 위한 자료 생산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비롯한 외국 자료 및 국내의 다른 조사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제2기 패널에서는 제1기 패널에 비해 조사 과정의 효율과 조사 자료의 품질 및 유용성 향상이 기대된다.

성과에 관한 기술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에서는 한 국의료패널 자료의 활용이 많은 편이고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종단 자료에 대한 분석이 적다는 점 등의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하겠다. 정책 과정에서 활용되는 실태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활용되는 자료와 빈도,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 자료와 연구 결과를 현안 정책과제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정책 당국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패널 조사를 매년 실행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정책과제와 관련해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지표들을 개발하여 변화를 관찰, 분석한다면 정책의 성과를 적시에 파악, 평가, 조정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료패널은 단면적 조사에 비하여 고비용 사업이지만 패널 자료의 장점을 살린 분석과 연구를 활성화한다면 보건의료 부문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 전략과 수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